

숫자로 보는 도로정책

도시지역 도로혼잡에 대한 국민 인식

정 수 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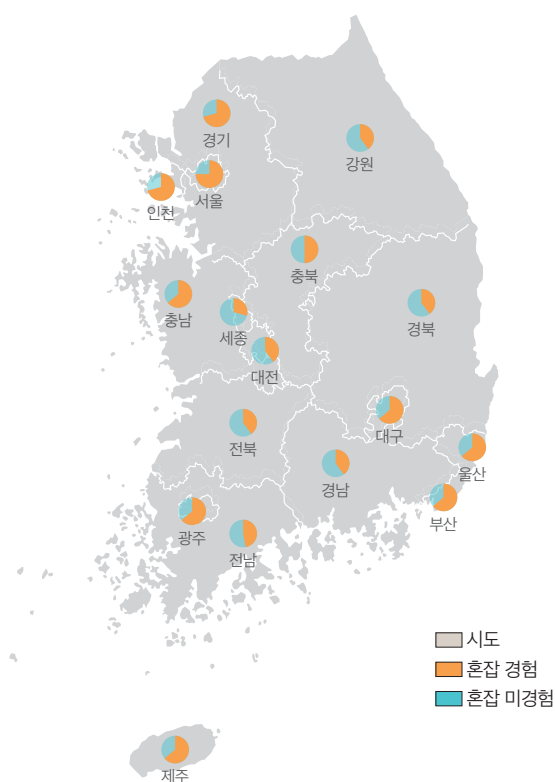
국토연구원 연구원

quisiy@krihs.re.kr

조사 개요

- 목적 : 도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('도시지역 도로혼잡과 국가 개입 필요성' 부분 발췌)
- 대상 :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전국 성인 남녀 1,000명
- 기간 : 2023년 11월 28일 ~ 2023년 12월 6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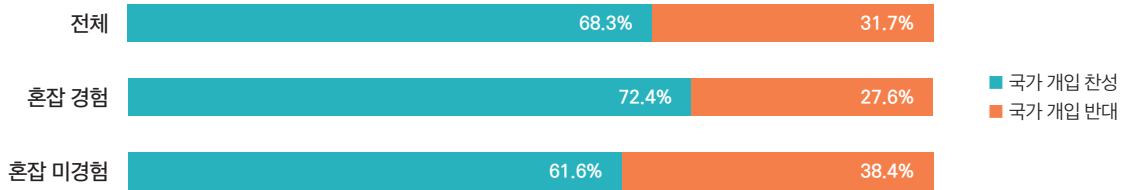
주로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혼잡 경험 비율 (시도별)



사·도	혼잡 경험	혼잡 미경험
서울	75.9%	24.1%
부산	57.6%	42.4%
대구	54.2%	45.8%
인천	76.7%	23.3%
광주	57.1%	42.9%
대전	44.8%	55.2%
울산	59.1%	40.9%
세종	28.6%	71.4%
경기	72.4%	27.6%
강원	39.3%	60.7%
충북	50.0%	50.0%
충남	65.8%	34.2%
전북	37.5%	62.5%
전남	46.9%	53.1%
경북	40.4%	59.6%
경남	37.1%	62.9%
제주	58.3%	41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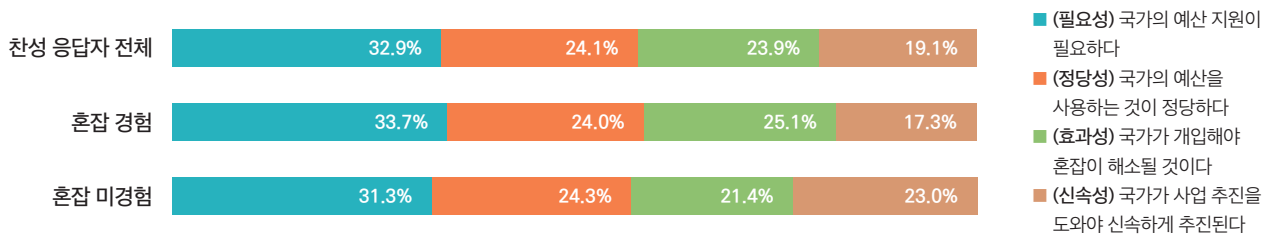
- 수도권 지역(서울, 인천, 경기)은 70% 이상의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서 혼잡을 경험하고 있음
- 비도시권 광역시 중 혼잡 경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, 부산, 광주, 대구, 대전 순으로 나타남
- 비도시권 중 도 지역에서 혼잡 경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, 제주, 충북, 전남, 경북, 강원, 전북, 경남 순으로 나타남

도시지역 도로혼잡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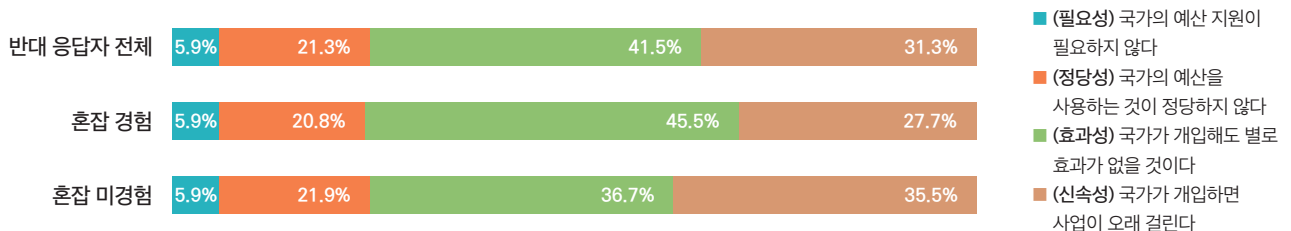
- 도시지역 도로혼잡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은 전체 1,000명 중 68.3%, 반대하는 응답은 31.7%임
 - 혼잡을 경험한 620명 중 국가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72.4%로 전체보다 높음
 - 혼잡을 경험하지 않은 380명 중 국가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1.6%로 전체보다 낮음
- 국가 개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응답자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 혼잡을 경험하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
 - 도시지역 도로혼잡 국가 개입 반대 의견은 혼잡 경험 그룹(27.6%) 보다 혼잡 미경험 그룹(38.4%)에서 높게 나타남

국가 개입에 찬성하는 이유 (찬성 응답자 620명 대상, 복수응답)



- 국가 개입에 찬성하는 응답자(620명)가 꼽은 찬성 이유는 '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'가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정당성, 효과성, 신속성의 순으로 나타남
- 응답자의 혼잡 경험 여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, 각 이유에 대한 응답 편차가 적음

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이유 (반대 응답자 380명 대상, 복수응답)



-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(41.5%)이라는 인식에 있으며, 이는 혼잡을 경험한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남(45.5%)
-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
 - 즉,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효과성과 신속성 등 효율성 측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판단됨